

국민대 '문대성 논문 표절 결론' IOC에 회신...이제 어떻게 되나?

지난 2월 '심각한 표절' 최종결과 보내 IOC, 조사 재개 위한 조건 마련 불구 위원직 박탈은 절차 복잡해 힘들 듯

본지 단독

국민대 관계자는 2일 "지난달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문대성(38·새누리당·사진) 의원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조사에 대한 최종 결론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2월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2년간 계속된 문 의원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심각한 표절에 해당한다"는 2012년 3월 예비조사 결과를 그대로 확정판 것이다.



스 바흐 IOC 위원장은 2013년 12월 "해당 대학(국민대)에 표절 조사 결과를 보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

다"며 조사의 공식 종단을 선언한 바 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드러나면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국민대 측은 "2월 최종 결과가 나온 이후 IOC로부터 '아직도 (표절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느냐'는 질의를 받았고, 결론이 나오지 않으니"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바흐 위원장의 발언대로라면, IOC가 문 위원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조사 이후 징계가 내려진다고 해도, 선수위원회 박탈 등의 조강수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 관측이 우세하다. IOC는 2013년 5월 헝가리 대통령 출신인 팔 슈미트 IOC 위원에 중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슈미트는 IOC 분과위원회 활동에선 자발적으로 물러났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IOC 위원을 퇴출시키려면 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쉽지 않은 절차다. IOC 입장에서도 문 위원의 표절은 흠이다. 굳이 스스로 큰 이슈로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단, 외신 반응 등의 변수는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IOC는 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14년 IOC의 25개 분과위원회의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문대성 위원은 선수위원회와 생활체육분과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문 위원의 임기는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까지다.

전문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setupman11

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 잘 나가던 통합논의 중단...왜?

국민생활체육회, 'KOC 분리' 놓고 뒤늦게 제동 2009년에 의결된 사항...하부조직 반대가 원인

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3차 체육발전위원회 전체회의. '국가대표 생애주기 지원계획'을 놓고 토론이 진행될 때 임태성(한양대 교수·21세기 스포츠포럼 상임대표) 위원, 전병관(경희대 교수·한국체육학회) 위원 등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우선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가대표를 포함한 아마추어선수들의 은퇴 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반드시 국민생활체육회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단편적 사례에 불과하지만,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발전적 공생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분리돼 있는 나라는 드물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이하 문체부)도 강력한 의지로 두 단체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금물살에 제동 걸린 통합 논의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지난해 말 개별적으로 통합 필요성을 검토했고, 두 단체 모두 큰 틀에서 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2017년 1월까지 통합을 완료한다는 시간표도 마련하고 양해각서(MOU) 초안도 교환했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올 1월 이사회를 거쳐 2월 대의원총회에서 통합 찬성을 의결했다.

금물살을 타는 듯하던 통합 논의에 제동이 걸린 것은 국민생활체육회의 입장 변화 때문이다. 1월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통합하겠다"고 공표했던 국민생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2월 27일 스포츠 3.0 위원회에서 "KOC(대한올림픽위원회) 분리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는다면 통합은 어렵다"고 주장하며 탄축을 걸었다.

●내부 반대에 부딪힌 국민생활체육회

2009년 6월 대한체육회와 KOC를 통합한 대한체육회는 'KOC를 분리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국민생활체육회와의 통합을 의결했다. 이를 뺀다고 있는 국민생활체육회가 뒤늦게 KOC 분리 문제를 거론한 것은 표면적 이유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서상기 회장 등 국민생활체육회 수뇌부는 통합이라는 큰 대의에 동참하고 있지만, 하부조직의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2월 대의원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구두보고에 그친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생활체육회 동향에 정통한 한 인사는 "시도지부 대표자들은 대부분 통합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종목별 연합회 등은 대다수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kimdohoney

세대교체 남자복싱, 희망 쏜다

인천AG 대표팀 9명 확정...대학생 대거 포함 박시현 감독 "경험 부족 대비해 유럽 훈련"

세대교체에 접어든 남자복싱대표팀이 2014인천아시아게임에서 희망의 편지를 날릴 수 있겠다.

대한복싱협회는 3월 25~27일 인천 선학체육관에서 2014국가대표선수최종선발대회를 열었다. 이로써 9월 인천아시아게임에 출전할 10명의 남자대표선수 중 9명이 확정됐다. -81kg급에서 1위를 차지한 김동희(남해군청)는 태극마크를 받았다. 2·3위에 오른 이계현과 김영규(이상 한체대)가 15일 최종전을 치러 대표팀에 마지막으로 승선할 예정이다.

이번 복싱대표팀의 특징은 젊은 선수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이다. 2012년런던올림픽 -60kg급 은메달리스트 한순철(30·서울시청)과 2011세계선수권 -49kg급 은메달리스트 신종훈(25·인천시청)은 태극마크를 지켰다. 그러나 -56kg급 함상명(19·용인대), -64kg급 임현철(19·대전대), -69kg급 구교성(21·한체대), -91kg급 박남영(22·상지대) 등은 모두 새 얼굴이다. 이들은 10대 후반~20대 초반의 대학생 선수로, 향후 남자복싱을 이끌 주역들이다.

문제는 국제경기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한복싱협회는 4월 중순부터 한 달 보름간의 일정으로 남자대표팀의 유럽전지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복싱대표팀 박시현(49·1988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감독은 "세르비아와 리투아니아에서 국제대회를 치른 뒤 독일로 넘어가 프랑스·아일랜드·러시아·독일대표팀과 합동훈련에 돌입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복싱은 1986서울아시아게임에서 12체급 모두를 석권하며 전성시대를 맞았다. 그러나 2002부산아시아게임 금메달 이후 2006도하아시아게임과 2010광저우아시아게임에선 금사냥에 실패했다. 인천아시아게임에서 정상에 서기 위해선 북싱강국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벽을 넘어야 한다. 유럽전지훈련은 이들 국가를 대비한 좋은 모의고사가 될 전망이다. 박 감독은 "12년 만에 홈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전문기자 hk7048@donga.com 트위터@hk7048

박인비 2연패냐? 박세리 마지막 꿈이냐?

오늘 개막 LPGA 시즌 첫 메이저 나비스코챔피언십 관전 포인트

박인비, 2연패 찍고 그랜드슬램 재도전 박세리 16년만에 커리어 그랜드슬램 꿈 KLPGA 상급랭킹 1·2위 장하나 김세영 배장플레이어로 LPGA 직행 티켓 정조준



3일(한국시간) 개막하는 미 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 대회 크래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에서 시즌 첫 승 사냥에 나선는 한국선수들이 개막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최나연, 유소연, 박인비, 김인경(왼쪽부터).

●박인비 '나비스코 2연패' 찍고 그랜드슬램 재도전

박인비는 지난해 이 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LPGA챔피언십, US여자오픈까지 메이저 대회 3연속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브리티시여자오픈 우승에 실패하면서 그랜드슬램이라는 대기록 달성에 실패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인비는 나비스코챔피언십 2연패와 '어게인 그랜드슬램' 도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나비스코챔피언십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건 안나카 소렌스탐(스웨덴·은퇴)이 유일하다. 2001년과 2002년 우승을 차지했다. 박인비가 대회 2연패에 성공할 경우 12년 만에 연속 우승자가 된다.

박인비는 올해 4개 대회에 출전해 평균 타수 69.25타로 1위, 4개 대회 연속 '톱10'

진입에 성공할 정도로 안정된 기량을 뽐내고 있다. 또 LPGA투어 우승은 없지만 3월 출전한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 월드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올랐다. 우승후보로 손색이 없다.

●박세리, 커리어 그랜드슬램 꿈 이룰까.

'원조 골프여왕' 박세리는 1998년 맥도널드 LPGA챔피언십과 US여자오픈, 2001년 브리티시여자오픈 등 메이저 대회에서 5승을 기록했다. 통산 25승을 올려 2007년에는 여자골프 명예의 전당에 가입했다. 아쉬움이라던 단 하나, 커리어 그랜드슬램이다.

박세리가 나비스코챔피언십에서 우승할

경우 1998년 LPGA 도전 이후 16년 만에 커리어 그랜드슬램에 성공하게 된다.

우승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다. 박세리는 유독 이 대회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 왔다. 역대 최고 성적은 2012년 기록한 공동 8위일 정도로 부진한 모습. 희망적인 건 경험이다. 지금까지 16차례 이 대회에 출전했다.

●장하나, 김세영 '호수의 여인' 될까?

미 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로 열리는 이 대회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상급랭킹 1, 2위에게도 출전 자격을 준다. 올해 행운을 거머쥔 주인공은 장하나와 김세영이다.

KLPGA 선수들이 이 대회에서 우승한 적은 없다. 코스도 낯설고 LPGA 투어라는 부담으로 인해 대부분의 선수들이 성적보다 경험에 만족하고 돌아왔다. 올해 기대를 거는 건 장하나와 김세영이기 때문이다. 둘은 장타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대회가 열리는 코스는 전장이 6738야드에 이른다. 여자 대회치고는 꽤 긴 편이어서 장타자들에게 유리하다. 더불어 장하나와 김세영은 특유의 배장 플레이, 강한 승부근성,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한방'을 갖추고 있어 코스와 분위기 적응에 따라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주요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na1872

허리 수술 우즈 마스터스 불참

20년만에 결장...수술 회복 몇주 걸릴 듯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20년 만에 마스터스에 불참한다.

우즈는 2일(한국시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허리 부상과 수술로 인해 마스터스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즈는 2월 혼다클래식 4라운드 경기 중 허리 부상을 이유로 포기했고, 지난 달 열린

아널드파머 인비테이셔널은 개막을 하루 앞두고 기권해 부상의 심각성을 예고했다. 우즈는 지난달 31일 유타주에서 허리 부상에 따른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완전한 회복에는 몇 주가 걸릴 예정이라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우즈가 마스터스에 출전하지 않는 건 1995년 아마추어 자격으로 첫 출전한 이후 처음이다. 이후 20년 동안 단 한번도 마스터스



에 결장한 적이 없다. 우즈는 역대 마스터스에서 4승을 올렸다.

1997년 처음 우승했고, 2001년과 200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골프황제로의 전성기를 맞았다. 마지막 마스터스 우승은 2005년이다. 마스터스 불참으로 세계랭킹 1위 자리에 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우즈는 "마스터스를 포함해 몇 차례 더 대회에 출전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남자골프 세계랭킹 1위(9.27점)를 지키고 있지만 2위 애덤 스콧(호주·8.37점)에 쫓기고 있다.

한편 골프의 '명인열전'으로 불리는 마스터스는 10일부터 미국 조지아주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장에서 개최된다.

전문기자 hk7048@donga.com 트위터@hk7048